

합동전화- 2020 년 3 월 28 일

연결된 한 가족
상호 의존적 형제애에 대한 기여

1. 코로나 바이러스 - 형제애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요구하는 비상 사태

최전방에 있거나,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여러 방법 증언

2. 코로나 바이러스- 일, 공부, 관계, 연대감: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나

인터넷의 역량을 재발견하며 사회의 도전을 대면하는 이들의 증언.

빈곤의 상황 안에서 홀로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들.

3. 코로나 바이러스- 멀지만 일치되어

전 세계의 포콜라레 공동체에서 태어난 지원 활동, 상호 도움, 기도와 나눔.

4. 콩고 - 전염병은 타파할 수 있다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몇 개월간의 어려운 투쟁 후의 증언.

5. 시리아-10 년 전쟁 이후의 희망의 소리

최근에 시리아로부터 귀국 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AMU (일치된 세계를 위한 활동) 책임자

프란체스코 토르토렐라와의 인터뷰.

6. 포커스 -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 항상 시키기 위해 줄 수 있는 기여는?

교황청 라테란 대학 총장 빈첸시오 본 우오모, 경제 학자 루이지노 브루니, 변호사 에미

울먼과의 대화.

7. 끼아라 루빅: 하느님께 모든 근심을 내어 던지기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이는 포콜라레 창설자의 30 년전 글. 1987 년 3 월 26 일 몰렌스에서의 합동전화: “성부께 우리의 모든 근심을 내어 던지자”.

8.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지금이 그 때

“이미 번져가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무기인 사랑.” “평화를 위한 시간” 활동의 관점에서도 일치와 형제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가라는 포콜라레 운동 가족에게 보내는 회장의 초대.

1. 코로나 바이러스 - 형제애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요구하는 비상 사태

음악과 자막:

코로나 바이러스 - 최전방에 있거나,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여러 방법 증언

전염병은 끝날까? - 에볼라를 물리친 콩고의 증언

시리아-10 년 전쟁 이후의 희망의 소리

우리를 부르는 글로벌 과제

영웅적으로 살기 위해

서로를 위해 살고

현재를 살고

희망을 가지자

합동전화 특집

스테파니아 타네시니, 합동전화 편집 위원: 안녕하세요, 합동전화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웹 사이트 및 페이스 북을 통해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저도 다른 분들처럼 집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며, 전에 없던 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실성, 습관, 관계, 삶의 방식,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며, 수천 명의 사망자외 더불어 세계적 유행병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의사, 간호사, 공공 질서 관리자, 슈퍼마켓을 열어 둔 사람,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사람 등 최전방에서 우리가 삶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는 분들의 영웅적인 행위의 물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제작실에서는 미리 준비한 서비스를 제쳐 두었지만, 예를 들어 포콜라레 운동 친구 주교들의 최근 모임 소식 등은 focolare.org 의 합동전화 웹 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nada닐 수 없고, 여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여를 청하기로 했는데, 그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전세계의 많은 이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살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수 많은 스토리, 경험담을 보냈습니다.

시간적인 이유로 일부만 합동 전화에 넣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소셜 네트워크와 웹 사이트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코로나 19 시기의 많은 이들의 경험을 얘기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가 겪고 있는 유일한 위기는 아닙니다. 시리아의 분쟁과 콩고 북부 키부의 에볼라 바이러스 비상 사태 등 적어도 두 가지는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미 올먼, 빈첸시오 본워모와 루이지노 브루니를 연결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를 삽입 한 끼아라의 합동전화 녹음을 들겠습니다. 1987 년 3 월 26 일의 것인데도,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엠마우스의 집과 연결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로 살바 폴리, 신경과 의사- 포콜라레 운동 이탈리아 지역 공동 대표- 이탈리아, 로마: 저는 일상시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 관리자, 모든 직원, 수도자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병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좀 더 오래 일합니다.

물론 이 시기는 모든 사람과 이탈리아의 포콜라레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할 수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 어쩌면 친척을 잃었기 때문에 살게 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들도, [...] 우리 모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빛인 더 큰 빛으로 비추어져, 그 빛이 그들에게까지 도달하여 그들을 동반해 주었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전세계로부터 수천 가지의 비디오, 메시지, 마스크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많은 것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으로 큰 연대감을 경험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서도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피나 지나이, 로마-이탈리아: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뉴스에서 매일 보는 것과는 마치 다른 현실을 사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3 월 19 일 조용한 오후에, 우리 가까이에 사시는 아버지께 고열이 있었습니다. [...] 어느 순간, 호흡이 힘들어져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함께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결국 혼자 가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허약한 몸으로 구급차에서 실려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구나 다시 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인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겨내시지 못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 우리는 모두 자가 격리 되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Facebook 을 통해 장례 의식을 지켜 보았습니다 ...

이틀 후 한 아이가 고열로 깨어 났고, 의사는 즉시 검사를 하기 위해 구급차를 보내 주었습니다. 아들 사무엘이 양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치 발 밑의 땅이 꺼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남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 다행히 우리는 음성이었고, 함께 병원에 올 수 있었습니다. [...] 사무엘은 온 가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평온합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도 [...] 우리를 돕고 지탱해 줍니다. 때때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다 잘 될 것! 이라고 다짐합니다. 차오!

안드레아 카에릴리 신부, 롬바르디아, 이탈리아: 사랑하는 친구들, 나는 안드레아 신부이며, 알프스의 중심 지역 키아베나 본당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그렇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있지만 매우 아름다운 공동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임종자들, 요양원과 병원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들 가까이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내가 겪는 경험은 이러한 가족을 둔 가정을 돕는 것입니다. 죽음을 둔 임종자들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과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접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젊은 동료 로렌조 신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되어 서로 격리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격리 되어야 했어요. 이 상황은 우리를 더 제한되고 빈곤하게 만들었어요. [...] 그렇지만 이렇게 겪게 되는 외로움 속에서 부각 되는 것은 친교에 대한 열망입니다. [...] 이 모든 상황은 매우 아름다운 연대감과 친교의 분위기를 나아줍니다.

아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특히 이 순간에는 임종 자들을 동반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외침이 이 모든 것을 능가 합니다. [...]

알베르토 마르실리오, 미라- 베네토, 이탈리아: 안녕하세요, 저는 알베르토 이고 베네치아 주 미라에 사는, 가정의사 입니다. 30 년 동안 의사로 지내면서 이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은 처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때부터 [...] 환자들과 첫 대면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근무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

하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었어요. 나와 함께 일하던 한 동료의 양성 반응이 나와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도 자가 격리를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나도 바리케이드 반대 쪽에 있으면서, 내가 돌보던 환자와 똑 같은 걱정과 염려를 체험했습니다. 다행히도 검사 음성 반응이 나와서 며칠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안으로 또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등 마음가짐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 매일 전화를 걸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다 보니 어떤 분과는 의사와 환자 이상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계속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황금률에 따라, 즉 내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해 주는 것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겪었던 격리 기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피에르안젤로 페초타, 베르가모-롬바르디아, 이탈리아: 저는 피에르안젤로이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태리 전역에 알려진 베르가모 시에 살고 있습니다. [...] 이번 주에 저의 매부 장례가 있었고, 누나는 일주일 이상 고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고자 하루에 네, 다섯 번씩 통화를 합니다.

며칠 새에 20 명 이상의 사제가 죽었기 때문에, 사제들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님과 다른 사제들과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어머니를 잃었고, 한 분은 동생을 잃었고, 다른 사람들은 ...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본당 신부와 통화했는데 “방금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군인들이 화장하러 운구하는 35 구의 사체를 축복하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는 것은 감실 밖에 계시는 예수님, 곧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사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

여러 가족들에게서 전화를 받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어제 우리는 음식도 없고 사러 갈 돈도 없어서 굶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카리타스회를 담당하고 있기에 음식 봉지를 준비해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편함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유지도 지키도록 하지요. 이렇게 그들은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지금 봉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루해할 여유가 없습니다. [...]

마태오 베레타, 비아소노-롬바르디아, 이탈리아: 안녕하세요, 마태오, 모니카이고, 바올라는 우리를 찍고 있어요. [...] 나는 호스피스 병동 책임자로 완화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이 보건 재난 중에 저와 우리 팀에게 홀로 죽어가게 될 환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몇 개 병상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 받았습시다. [...] 우리 팀은 즉시 제안을 즉시 받아들이고, 그저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임종 자에게 축복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사제가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혼자인 이 분들이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임종을 맞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프랑카 카포니, 세리아나 계곡- 롬바르디아, 이탈리아: 나는 프랑카이고 세리아나 계곡에 살고 있습니다. 베르가모의 이계곡은 현재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자 수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곡에는, 밤낮으로 쉼 없이 지나가는 구급차의 사이렌에 의해서만 깨어지는 적막이 있습니다. 걱정은 고뇌가 되고, 침묵이 되고, 고립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집에 갇혀 외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의 모두가 고령인 12 가족과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 비상 사태가, 관계의 비상 사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

예를 들어, 한 미망인은 병들었는데 병원에 데려 가거나 약을 구해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약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 며칠 후에 그 분에게서 식욕도 없고 준비 하기도 귀찮아 며칠 동안 먹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먹을 것을 준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나와 같은 층에 95 세의 부인이 살고 있는데, 자신의 유일한 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주 울곤 했습니다. 나는 그 분이 내가 가끔씩 맛보게 해 준 디저트를 아주 좋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것을 준비해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 그 부인은 즉시 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서, 때로는 한 조각의 케이크 만으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처럼 우리 공동체의 많은 다른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작은 몸짓들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

우리가 가장 강하게 공유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각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모든 이에게 도달하기 바랍니다.

아나 모레노, 마드리드-스페인 (스페인어): 스페인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잔인한 영향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그 이상의 감염자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마드리드에서는 보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 모든 보건 요원은 1000 % 이상을 하고 있으며, 집에서 제작하는 마스크부터 위생 자재

회사의 기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대 활동이 그들에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녁 8 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하는 이들과 약국과 슈퍼마켓 직원 등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노인들에게로도 향하는데, 스페인 내전과 전후 기간을 거쳐 2008 년 위기에 큰 도움을 준 분들이, 지금은 가장 큰 피해자 입니다. 우리는 노인을 잘 대우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보건 위기에 발 맞추어 참된 연대감의 물결이 일고 있고, 우리에게 형제애를 느끼게 해주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일 더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양헬 토랄, 노인병 전문의- 마드리드, 스페인 (스페인어):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병 전문의 양헬이며, 마드리드의 한 실버 타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인들과 직원들 중에 여러 양성환자들이 있어서 친척들에게는 큰 걱정이 되고,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큰 긴장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나는, 현순간을 사는 데 집중하고, 모든 어려운 결정에 대해 하느님에게 도움을 청하며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병문안을 할 수 없어서 메시지를 보내려는 친척들을 돕는 등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가장 위독한 로사리오씨에게 정말 사랑한다는 딸의 인사를 대신 전할 때, 마스크를 넘어 따스한 인사말을 전하려고 노력하면서, 장갑을 낀 손이었지만 모든 애정을 담아 손을 꼭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로사리오씨 하느님은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고립을 타개할 수있는 하느님 사랑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리아 헤수스 아란다, 탈라베라 데 라 레이나 - 스페인 (스페인어): 내가 처음 슈퍼마켓에 갔던 날, 계산대의 직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품 진열과 계산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한계에 달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시점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큰 소리로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여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드리자고 했습니다. 나도 그런 식으로 격려 받고 싶다고 느꼈기 때문에 행했던 작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마릴렌, 대구- 한국 (한국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릴렌입니다. 2 월 18 일, 우리 도시 대구에서 바이러스 양성자가 한 명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숫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

마스크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는 두 개만 남아 있었는데 [...], 친구가 그에게 가면 10 개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그에게 가려면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시내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해야 하지만 다른이의 유익을 생각해야 하므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다른 친구가 나에게 택배를 보냈는데 50 개의 마스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

우리는 모든 한국인들과 어느 모로 특별한 방식으로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잘 지내지 않으면 나도 잘 지낼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간의 사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모든 분들을 위해 매일 기도드립니다. 차오!

2. 코로라 바이러스 - 일, 공부, 관계, 연대감: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나

스테파니아: 그런데 우리의 일, 공부, 가족과의 일상, 친구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계속 존재하는 사회적 도전을 어떻게 직면하나요? 우리는 예를 들어 집에서도 계속 공부할 수있는 것과 같이 더 큰 인터넷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마태오 브루노: 나는 14 년간 이 YouTube 채널을 사용해 왔습니다...

[음악과 자막: 마태오 브루노는 구독자 수가 350,000 이상인 YouTube 채널이있다.

그의 블로그에서 로마의 교사이며 젠인 엠마누엘라 스토폴로니를 인터뷰했다.]

마태오: 내게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젊은 교사인 엠마누엘라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 이 이야기에 왜 엠마누엘라를 선택 했냐고요? [...]

어느 순간 교사가 되기로 했다고요?

엠마누엘라: 나는 교사를 택했습니다. 예, 저는 교사가 되기 위해 무기한의 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 지금 우리는 전자 녹음을 활용하고, 그 뿐아니라, 모든 측면의 비디오 교육을 위해 Skype 또는 Zoom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은 이 플랫폼에서 연결되고, 나는 칠판을 열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

마태오: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지 않는 일종의 악동이었는데 [...] 지금 학생들은 무엇을하고 있습니까?

엠마누엘라: 우리 학생들은 속도를 늦추기 보다 오히려 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속도를 냈는데, 모든 교사들은 즉시 가동을 했고, 우리 학생들도 숙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전원이 저와 연락을 하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학교로 되돌아 갈 때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마태오: 바로 이 점이 오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엠마누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순간을 사는 것, 매 순간 순간 하고있는 일을 최선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겨냥하면 공황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고 있는 일을 잘 한다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마태오: 엠마누엘라가 적중한 것 같은데,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과 같은 이 순간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살고 집에서 할 수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적어도 시도는 해 봅시다.

숙제 검사, 원격 질의, 원격 수업 잘 하기 바랍니다.

엠마누엘라: 좋습니다. 차오!

엔조 파란나, 만토바-롬바르디아, 이탈리아: 나도 이 작은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 재의 수요일 직전 화요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불안이 전반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유아기에 필요한 모든 용품을 판매합니다. 가게에서 우리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모든 형태의 소독제를 진열대에서 싹쓸이 해갔습니다. [...] 그런 상황을 보며,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오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남은 소독제를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

그러나 문을 닫기 전에, 우리 고객인 압델 라힘이 상점에 와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소독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내 것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다 팔렸다고 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 나는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존재로 느껴졌고, 이러한 나의 처신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는 실비아와 [...]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압델 라힘이 만토바에서

정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정비소 이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정비소에 찾아갔는데 그가 없었습니다. [...] 나는 상자를 사무실에 두고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식 기간이 시작되는데, 때로는 자신과 자신의 애착으로부터 금식을 시작해야 하므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이 순간을 그와 함께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

며칠 전 상점 폐쇄 명령으로 우리 가게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압델 라힘이 우리 가게에 와서 멀리서 나를 보고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세게 세 번을 치고, 내게 감사해 하며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할 때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

나는 금식이 필요를 채워 주고 훨씬 더 큰 빈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 단순히 이것입니다.

뮈리엘 플로리, 파리-프랑스 (프랑스어): 프랑스에서는 10 일 전부터 격리가 시작되었는데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고, 조치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활동의 중단은 생계비 증가와 연금 개혁에 항거하는 겨울 파업 등 격렬한 « 노란 조끼 » 시위 18 개월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

격리는 갑자기 거리를 비웠지만, 많은 연대감과 형제애적 행위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친구, 가족 등 여러 해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든 어머니와 딸은 3 년간의 고통스러운 침묵 후에 다시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해줍니다.

무교인 미셸과 무슬림 술레만은, 이 격리 시기에 그들의 삶을 우리와 나눕니다.

미셸 터불 (프랑스어): 무신론자인 제게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자 자기 집에서, 그러나 모두 함께” 라는 슬로건이 나를 잘 표현한다고 느낍니다. 이 격리는, 내가 아는 노인들과 많은 전화 통화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

매일 저녁 8 시에, 많은 동네 주민들과 같이 각자 창가에 나와서, 보건계 종사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솔레만 소우 (프랑스어): 제 이름은 솔레만 소우입니다. 저는 이슬람교도이며 크레테이 포콜라레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와 사원은 문을 닫고, 우리는 집에 격리되어 지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인터넷으로 전례에 참여할 때 그들과 함께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코란을 읽기 위해 내 방으로 가기도 합니다.

종종 질문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알라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도록 도와 주실 것을 청하며, 병자들과 의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레지나 갈리, Decade S-코르도바,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차오, 저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레지나입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본사를 둔, EoC의 원칙을 지키는 의료 용품 유통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콜 성분의 젤 혹은 마스크 같은 제품의 많은 요청을 받았지만, 우리는 주로 호흡기, 위 또는 기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젤과 마스크를 엄청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EoC 원칙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투기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면서, 회사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조금 남는 것은, 병 때문에 마스크와 알콜 젤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남겨 두었습니다. 건강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큰 도전이었지만, 우리는 항상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실비나 체멘, 베텔 공동체 –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베텔 유대인 공동체의 랍비 실비나 체멘입니다. [...]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것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자원 봉사자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봉사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의 현존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예방책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우정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체적인 형제 관계를 지닌 포콜라레 운동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 내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런 작은 인류애의 몸짓일 것입니다. 이미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지 깨닫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자가 격리를 시작하는 이 곳 아르헨티나에서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탈리아와 많은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적인 연대감 사랑을 표합니다.

우리가 직접 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가상의 포용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첫 계명이니만큼 계속해서 치유된 인류를 건설하겠다는 나의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타니노 카루소, 의사, 베르가모-롬바르디아,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 저는 술선자이며 의사인 타니노입니다. 나는 의사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음식 낭비와의 투쟁을 통해 가난한 가정을 돕기 위해 아내와 함께 설립한 Mt 25 협회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긴급 보건 상황을 고려하여, 매주 200 가정 이상을 돕는 활동을 중단 할 것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며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원 봉사자 수를 줄이고, 모든 보호 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그렇지만 이동에 큰 위험이 있는 가정들을 위한 배달 서비스를 활성화했습니다.

덧붙여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태 복음 25 장에서 영감을 얻은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즉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라는 말씀뿐 만이 아니라,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수입이 줄어든 이 시기에 우리의 도움은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근에 받은 메시지 중 하나로 끝맺겠습니다.“[...] 어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느님의 선물을 가져 온 당신을 보았을 때 그 것은 제게 상징적인 표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임대료를 내는 대신 일하고 있으며, 두 번째 일이 주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못하고 당연히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 당신은 우리에게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께 차오!

(음악)

베로니카 비스카르디, 3 젠, 밀라노-롬바르디아, 이탈리아: 안녕하세요. 이 격리 기간 동안 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기쁨을 재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어제 아빠와 함께 농구를했는데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또 현 순간을 온전히 살기 위해 기쁘게 최선을 다해요.

어머니: 모두에게 인사드려요!

아버지 : 비스카르디 가족 모두가 인사드립니다!

마태오, 3 젠, 밀라노 -롬바르디아, 이탈리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1 살이고 밀라노 근처에 살고 있어요. 4 주 전에 학교를 닫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저의 하루는 전과 완전히 달라요. 항상 집에 있지만 다행히도 온라인으로 수업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가끔씩 동생과 함께 놀아 주거나 작은 일을 도우면서, 계속해서 공부나 집에서 내 몫을 잘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시기가 우리가 가족과 더 함께 있고,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마태오, 여동생과 함께: 차오!

다비데: 제 이름은 다비데이고 6 살입니다.

카를라: 안녕하세요, 카를라입니다. 4 살인 루카와 2 살인 베네데토도 소개합니다.

안나: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이고 7 살입니다. 우리는 27 일 동안 집에 있지만, 너무 재미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에게 나누어 줄 '아버지 날' 비스킷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비스킷을 이웃에게 가져다 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비데: 우리는 그들을 기쁨으로 감염시킬 것입니다!

후안 파블로: 기쁨으로 감염시키자!

[자막: 기쁨으로 감염시키자]

[...]

키티 더 버로우, 간호사-캘리포니아, 미국 (영어): 지난 2 주 동안 우리 병원은 수술 및 기타 응급상황이 아닌 것은 모두 취소하고, 진료도 비디오 진료로 전환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해 방문객의 병원 출입을 막았습니다. 시에서 인공 호흡기가 장착되어야 하는 중환자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 마스크와 같은 직원 보호 장비는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 간호사이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여 모든 직원들의 두려움을 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 할 것입니다.

조 체하데, 약사- 캘리포니아, 미국 (영어): 제 아내 매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앤젤레스에 EoC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아주 바쁩니다. 마스크, 알코올 및 손 소독제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취약함을 느끼고, 우리 자신과 직원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매와 함께,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 해 주시게 해달라고 마리아께 기도했고,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 문을 닫지 말고 계속 열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이전에 도매업자가 거부했던 엄청난 양의 알코올 및 손 소독제를 공급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공용체와 공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많은 이들이 자신들도 얼마 없지만, 가진 마스크를 나눠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웃 사람인데 제가 마스크를 수입하는데, 원하십니까?”라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백배의 상이었습니다.

[...]

크리스 피아차, 학생 - 캘리포니아, 미국 (영어):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북부의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일치된 세계’에 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치된 세계’의 메시지와 개념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일치된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멕시 칼리와 티후아나 중간에 있는 스튜디오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동료인 노아 헤레라가 이 분리의 시기에 일치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 장비로 원격 녹화를 할 것 입니다.

3. 코로나 바이러스 – 멀지만 일치되어

스테파니아: 또한 지역 사회와 도시에서 전 세계적으로 태어난 지원, 도움, 기도 및 나눔의 활동들도 많습니다.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프란체스코 베르톨리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레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나와 함께 키아라, 실비아, 로베르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 2 주 동안 집에 갇혀있습니다. 한 그룹의 친구들과의 화상 통화에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로베르토 스푸리오: 이 기간 동안, 무엇보다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로 하며, 함께 살기 위해 매일 만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레토’는 예전에 우리 도시의 옛 그룹들이 약속할 때 쓰던 암호 같은 것입니다.

실비아 주바니: 요즈음에는 젠,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자국의 전염병 상황과 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키아라 토니올라티: 경험, 정보 및 게임을 통해 이 순간들을 함께 살면서, 가정에서 계속 사랑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활용합니다. 이 비디오 끝에 링크를 남기며, 매일 오후 3시 화상 통화 때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무레토* 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두: 차오!

[자막 : #ILMURETTO-줌 코드: 661-382-359- 매일 이탈리아 시각오후 3 시]

Pray4Unity-#InTimeForPeace

여자 3 젠 A: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밀라노의 3 젠인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여자 3 젠 B: "Pray4Unity" 활동을 알고 있나요?

여자 3 젠 C: 아이디어는 낮에 잠깐 멈추고 깊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에요.

여자 3 젠 B: 1 분이면 돼요.

여자 3 젠 A: 릴레이 식으로 가상 바통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일치될 수 있을까요?

남자 3 젠 A: 우리는 팔찌나 끈을 손목에 차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 기억해요.

여자 3 젠 C: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모두: 차오!

산티아고, 메델린-콜롬비아 (스페인어): 차오, 산티아고입니다.

쟈스민 (스페인어): 저는 쟈스민이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콜롬비아 메델린의 2 젠이며,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이기도 합니다.

산티아고 (스페인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집에 머물것을 요구합니다.

[...]

쟈스민 (스페인어): 이번 주 화상 젠 모임에서 우리는, 집에만 머무는 것을 떠나, 우리 도시의 상황을 위해 무언가 더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일용직이므로, 이 격리 기간을 위해 비축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금을 하여 장을 봐서 그들의 집에까지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산티아고 (스페인어): 그때 누나가 제게 비디오를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

샤스민 (스페인어): [...] 비디오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공유되어 많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

산티아고 (스페인어): 이 경험의 매우 아름다운 점은, 장거리를 받은 가족들의 기쁨을 보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 기여한 사람들의 행복을 보는 것입니다.

스피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현 상황이 비관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걱정시키는 정보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있는 주제이며,

그 해결책은 집에 머무는 것 만은 아님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가치있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집에 머물며 기꺼이 가족을 돕고, 내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진실된 정보를 공유하고 선정적인 뉴스를 피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품절을 피하기 위해 절적인 쇼핑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답하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일치를 위한 젊은이들은 포콜라레 운동과 더불어, 이 상황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재정적 기부에 함께 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부 식품 공급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많은 가족들을 위한 75,000 페소의 비용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페소가 모여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여가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

한국 4 젠들의 기도

가족 함께: 하느님, 전 세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 어린이들은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에도 못 가고 있어요.

여자 4 젠: 친구들과 만나서 놀지도 못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재미있는 4 젠 모임에도 갈수 없게 되었어요.

여자 4 젠: 어른들은 우리가 손을 열심히 닦고 마스크를 써도 조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요. 정말 무서워요.

남자 4 젠: 그렇지만 하느님, 우리 4 젠들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자 4 젠: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자 4 젠: 하느님,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남자 4 젠과 엄마: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친구들과 다시 만나서 신나게 놀며 서로 사랑하게 해 주세요.

여자 4 젠: 우리 4 젠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의 주사위를 매일 던지며 사랑의 행위로 가득 찬 선물 상자를 매일 보내드릴게요.

여자 4 젠: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남자 4 젠: 아멘! (음악)

스테파니아: 한국 4젠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었어요.

4. 콩고-유행병은 타파할 수 있다

스테파니아: 먼저 얘기했듯이, 인류를 관통하는 다른 위기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의 북 키부 지역에서 온 비디오로 시작합니다. 베니시의 빅토르와 포콜라레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민들은 수년간 끔찍한 폭력을 겪어 왔으며, 에볼라 바이러스를 물리 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분쟁이 시작된 지 10 년된 시리아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족들의 발전을 위한 비정부 기구인 AMU 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 '일치된 세계를 위한 활동' 책임자인 프란체스코 토르텔라와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Ciao!

빅터 카말라, 베니-콩고공화국 (프랑스어): 우리는 부템보-베니 교구에 위치한 베니시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고마의 포콜라레에서 거의 400km 떨어져 있습니다.

2014 년 이후부터, 이 지역에서 우리는 가혹 행위를 경험했고, 학살이 행해졌습니다. 2018 년부터는 유명한 질병 에볼라 바이러스도 겪었습니다. 그 순간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고, 검역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운동의 일부 가족들은 전쟁과 질병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탈리아에 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끼아라가 '도시에 이미 운동의 작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를 떠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남은 사람들과 함께 남기로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돕고 고아, 학살 및 질병 피해자를 방문하는 사도직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의 2 년 동안 이 질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서로 도울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우리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5. 시리아-전쟁 10 년 후의 희망의 소리

스테파니아: 프란체스코, 반갑습니다.

프란체스코: Ciao Stefania, ciao a tutti.

스테파니아: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보고, 그 지역의 협력자를 방문한 후 시리아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됐지요? 무엇을 보았나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프란체스코: 작년의 방문과 비교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9 년 동안의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웃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 협력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내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를 유지시켜줍니다. 용기를주고, 여기에 머물 힘을 줍니다.”

나에게는 삶의 교훈입니다. 항상 삶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큰 피로감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시리아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종말의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테러 공격이 계속되고, 엄청난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 년 전에 한 달에 800 유로를 벌던 직원이나 교사가 지금은 40 을 법니다.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 만 들어옵니다. 가족은 더 이상 치료하고, 옷을 입고, 난방 할 돈이 없습니다. 만성 질환자들은 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 금수조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소진되어 “제발 도와주세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라는 민족을 보았습니다.

스테파니아: 그런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프란체스코: 모든 것이 필요지만, 우선 세 가지가 떠 옵니다.

첫째는, 암 치료를 위한 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한 남자 분이 약을 얻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왔습니다. 약국에서는 지난 5 일 동안 그 약값이 8 유로에서 13 유로로 올랐습니다. 신체 절단자에게는 보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탄을 맞은 소녀는 보살핌과 원조가 없었기 때문에 5 년 동안 침상에 남아있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언어 치료가 필요한데, 몇몇은 형제가 죽는 것을 보았 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기를 얻기 위해 음식, 의복, 디젤 연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리아 인들은 전쟁 전에 높은 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이 인적 자원을 이주로 인해서도 잃었기 때문에, 재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고, 가족들을 위해 파괴 된 집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훌륭한 젊은 배관공 팀이 있는데, 도구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결혼 예복을 만들 수 있는 젊은 양재사들이 있는데, 재봉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잊혀지지 않도록 말하고 들어 줄 동반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큰 가족의 일부임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파니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에서는 이렇게 열려 있는 전선을 잊어 버리지 않고, 이 민족들에게 우리의 연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텐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멀리서도 도움 방법이 있을까요?

프란체스코: 예, 우선프로젝트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겪는,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하는 프로젝트 운영자들에게도 편지, 메시지, 화상 전화 통화, 인사말.... 등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원하면 우리에게 여러분의 메시지를 보내 주면 우리가 시리아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여유분을 함께 모아 구체적인 재산의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AMU 또는 FN 에 기부금을 보낼 수 있는데, 우리 사이트에서 기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 물리 치료사 팀의 작업을 보여주는 다음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부금은 가능한 모든 노력과 투명성 안에서 활용 할 것입니다.

스테파니아: Grazie, Francesco!

프란체스코: Grazie, ciao!

음악과자막 :

시리아 비상 사태

물리 치료사 프로젝트-Homs

무함마드 알 살림

무함마드에게는 2 명의 딸, 2 아들 4 쌍둥이가 있다.

그들은 겸소한, 두 칸 방의 집에 산다.

무함마드는 일하는 동안 10 층에서 떨어지면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

2 년 동안 마비된 채 심한 우울증을 앓으며 집에 있었다.

그 후에 "KHATWA TEAM"프로젝트에서 물리 치료사를 만났는데, 그는 그를 이해하고, 돌보아 지금은 집에서 운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그의 신체 상태는 개선되고 희망이 돌아 왔다.

집은 단순하지만, 독창적인 도구가 있는 체육관이 된다.

참으로 특별한 조수들과 함께 하루에 두 시간 씩 운동을 하는데, 그들은 항상 도와주고 격려할 준비가 되어있다.

무함마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끈기 있고 이제는 가능한 빨리 다시 일할 수 있기만을 바란다.

(음악)

(이탈리아어 자막이있는 아랍어)

모두: 시리아 젊은이들의 인사를 보냅니다!

젊은 여자: 우리는 하루 동안 충만한 일치를 살았고, 우리의 대가족을 기억했습니다.

젊은 여자: 일부 회원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서로를 위해 살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모두: 우리는 특히 이탈리아와 전세계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위해 강력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UNO!

6. 포커스-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 더 향상되도록 할 수 있는 기여는?

스테파니아: 이제 워싱턴의 에미 울먼, 이탈리아의 빈첸시오 본 우오모와 루이지노 브루니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Luigino: Grazie.

스테파니아: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하고 싶습니다. “이 전염병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곳에서 듣고, 읽고, 모든 매체에서 되풀이 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뜻일까요?

에미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에미는 변호사이고 워싱턴 조지 타운 대학교의 교수이며,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분열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임원입니다.

에미 올먼 교수, 조지 타운 대학교-워싱턴, 미국 (영어): 우리는 아직 최악의 상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의 극심한 피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매우 강력한 진리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적 활동과 꿈과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있는 자유에 큰 가치를 두고,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에만 집중하면, 자원은 부족하지만 그만큼 가치있는 꿈을 이루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무감각하거나 심지어 장님이 될 위험입니다.

그 것이, 자원을 지닌 사람들이 건강 보험이나 병가, 실업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걱정해주고, 서류가 없어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강력하고 명확한 해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몸’이라는 이미지를 드러내 보여 줍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본적인 필요를 돌보기 위해 정치와 사회 생활을 재 설계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아무도 번성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이 경험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물었지요? 나는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 수준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진리의 순간이 우리의 집단 정신에 새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된 이 심오한 경험은, 현재의 정치 및 사회 구조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할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나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스테파니아: Grazie, Amy.

루이지노는 경제학자이니,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될지? 이 유행병 이후에 인류는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빈첸시오 본 우오모 교수, 교황청 라테란 대학 총장, 국제법 교수- 로마, 이탈리아: 세상은 똑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상은, 계절의 순환 이루어지, 한정된 자원, 특히 많은 차이로 구성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시기에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대응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생긴 변화의 능력입니다.

나는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내일을 생각하고 싶은 고통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분명히 생각해야하지만,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변화의 분위기에서 시작하지만, 즉각적으로 제도, 규칙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새로운 것처럼 이것은 투쟁이며,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갈등을 경험하고, 매일 전쟁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다른 전쟁이지만, 전쟁이 끝나면 규칙을 다시 작성해야하고, 특히 공유해야 할 가치들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변화시키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제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제 기관들은 문제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엔을 개혁하거나 세계 보건기구를 개혁할 추가의 추진력이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세계 보건 기구를 개혁하도록 기다린다면, 위험은 많은 국가에서 지배 계급이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위험 평가를 살펴 보면, 다음으로 해야할 공헌은 무엇입니까?

나는 거의 매일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과 만납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방금 의학과를 졸업 한 여러분의 동창들은 현장으로 보내 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요구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기관, 국가 또는 지역 현실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테파니아: Grazie, grazie Vincenzo.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짧은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말한 개인적 책임 과 공동체적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화가 재개 될 때, 우리가 할 수있는 기여는 무엇일까요? 에미.

에미 울먼 (영어): 빈첸시오와 마찬가지로 나도 온라인에서 가르치고 학생, 가족들을 봅니다. 나의 모든 관계를 통해 현재 공유 할 수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위기가 내 두려움, 불안 및 한계를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공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루이지노가 말했듯이, 우리의 관계에서 살 수있는 것은 바로 이런 유형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현 실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분별할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테파니아: Grazie, Amy.

Luigino.

루이지노 브루니: 우리는 이 위기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십억이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법을 존중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얼마나 악이나 선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선이 무엇인지 다시 이해했는데, 왜냐하면 공동악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선을 재인식하기 위해, 공동 악이 필요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한 몸이며, 우리는 연결돼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잊지 맙시다.

빈첸시오가 말했듯이,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변화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다시 달리기 시작하겠지만, 우리는 이 세계적인 격리 기간 후에는 다른 방식으로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테파니아: Grazie.

빈첸시오, 그럼 마지막 한 마디로 끝맺읍시다.

빈첸시오 본 우오모: 일치된 세계와 같은 표어, 공유 및 연대와 같은 표어는 예를 들어 다른 규칙들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예전에 그것을 할 수 없었다면,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모든 차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7. 끼아라 루빅 : “성부께 우리의 모든 근심을 던져버리기”

스테파니아: 이제 끼아라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처음에 끼아라가 33 년 전에 만든 현재에 꼭 맞는 오디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엠마우스와 연결하겠습니다.

끼아라 루빅: [...]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성덕의 길인 이 영성의 하나의 사실 위에 즉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우리 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고로, 우리는 고아가 아니며, 홀로가 아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떤 생각이 우리를 근심스럽게 하고, 동요시킬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란,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예상되는 어떤 위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불안이나, 어떤 일에 대한 걱정, 어떻게 처신해야 할 지에 대한 불확신감, 부정적인 소식에 대한 놀라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런 순간들, 바로 이처럼 불확신한 순간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을 것을 바라시며, 우리에게 신뢰에 찬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이 운동의 회원이라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곧,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생각하심을 믿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그분 안에 던져 버리고, 그분에게 지워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서에도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베드로 1서 5장 7절) 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시고, 자식들의 기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그의 자녀들도 사랑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근심들, 불안,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막아버리며, 자기 자신 안으로 닫아버림으로써, 그분의 뜻을 하면서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바대로 사랑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주는 것을 방해 합니다.

우리 운동 초창기때, 성령께서 자신의 교육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하시던 때, “모든 근심을 성부께 던져 드리는 것”은 매일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생활방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간적인 생활방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 걱정은 사랑하는데 있어 걸림돌 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손에 불덩어리를 잡고 있으면, 손이 타버리므로, 즉시 떨어 버리듯, 똑같은 민첩함으로, 모든 근심을 성부께 던져 드려야 한다고 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성부의 마음에 맡겨드린 근심치고 그 분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던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경우에, 가장 혼란스런 경우에 조차, 그 분의 사랑을 믿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매번 하느님이 개입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중, 여러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전화의 생각은 특히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각자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상황을 당해야 하고, 얼마나 많이, 그 분께서 생각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따라서, 모든 근심을 그분에게 던져 드립시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있어 자유로울 것이며, 아는바와 같이, 우리를 성덕으로 데려가 줄 사랑의 길에서 더 잘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8.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지금이 그 때

스테파니아: Emmaus, ciao!

엠마우스: Ciao Stefania, ciao a tutti.

스테파니: 연결되었는데, 집이 지요?

엠마우스: 그래요.

스테파니: 엠마우스, 환영합니다!

엠마우스: Grazie!

스테파니아: 엠마우스, 우리는 방금 하느님의 사랑을 믿도록 촉구하는 끼아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시기를 전쟁 시와 비교합니다. 우리는 “전쟁 시기였고 모든 것은 무너졌다”라고 시작하는, 끼아라의 이상과 그의 모험에 대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도 프로그램, 전망, 확실성, 경제적 안정 등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날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포콜라레 운동 회장): 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끼아라가 우리에게 이미 열쇠를 주었습니다. 우선 모든 것을 성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성부께 맡기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했고 계속 할 것입니다. 기도는,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부께 청하는 주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끼아라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가요? 우리는 특정한 우리의 기여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특별한 기여는 일치, ‘모든이를 하나로’, 보편적인 형제애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끼아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휩싸는 두려움, 걱정 등은 때때로 사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되풀이 합시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목표에 도달 할 수있는 유일한 무기, 세상을 사랑으로 채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무기, 그리고 모든 곳에 퍼뜨리고 싶은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흐르는 물, 생명수 처럼 이미 모든 곳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들었던 경험담 들에서, 사랑이 있고 점점 더 많아 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든 예에서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끼아라의 가족이 여러 환경에서 이와 같이 살기 위해 온 힘 다해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일치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 것은 마치 하나의 군대, 유일한 한 몸의 지체들, 사업회의 몸으로서 전 세계의 모든 지체에 현존하는 마리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사랑을 퍼뜨리고 희망을 퍼뜨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다른 그 어느 것 보다 더 이를 필요로하고, 진실로 우리에게 이를 청합니다. 우리는 이를 줄 수 있으니, 우리에게는, 끼아라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갖도록 명하는 일치와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끼아라의 이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다를 형성하는 물방울들과 같고, 어느 순간 함께 거대한 강을 형성하는 개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물방울들, 작은 개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합칠 때 이 사랑은 전 세계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기회를 찾고 있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사업회 전체가 5 월 첫째 주에 일치된 세계 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했던 방식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살고 있는 이 비상 사태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와 방식을 찾아야하며, 젊은이들은 모든 소셜과 미디어를 사용하여 수행할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회 전체가 이 준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평화를 위한 시간”으로, 우리는 평화를 건설하고, 형제애를 건설할 시간에 있으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지만, 지금이 그 때이므로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제가 현실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치된 세계 주간은 젊은이들의 것이 아니라 사업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할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게하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합시다. 하지만 또한 성령으로부터 다른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놓아 둡시다. 세상 곳곳, 모든 곳에서, 사랑은 항상 가능하고,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없고, 그 어떤 전염병도, 그 어떤 역경도 막을 수없고, 사랑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창의적 활동이 생겨나게 합시다. 이번 ‘일치된 세계 주간’에 증명해 보입시다!

그것은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함께 살고,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끝맺고자 합니다.

첫째, 아무 것도, 그 어떤 것, 그 누구도 사랑을 막을 수 없으며, 막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강점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일치된 세계 주간은, 보편적 형제 관계가 전진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스테파니아: Grazie, Emmaus! 대단히 감사합니다. 엠마우스의 이 세 가지를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엠마우스: 모두 감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스테파니아: 네, 함께! 보내 주신 모든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사이트와 소셜에서 공유할 것이니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다음 합동전화는 4 월 25 일 이탈리아 시각 정오에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내면에는 하나의 힘이 있다.”를 집에서 노래하는 젠 로쏘와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눕시다. 그들과 더불어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의 집에서 콘서트, 공연을 하며, 우리에게 용기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많은 다른 예술가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Ciao!